

# 브라질의 쇠고기 수급 동향 및 향후 전망<sup>1)</sup>

(원저자)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허 덕\*

## 1. 머리말

브라질은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세계 최대 수출국이다(표 1). 생산된 쇠고기의 70% 이상은 국내에서 소비되고, 나머지는 약 120여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다<sup>2)</sup>.

그러나 최근에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확산에 따른 국내 경제 침체에 따라 쇠고기 수요가 줄어들었다. 이 외에도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한 대응, 구제역 위상 재검토 등 쇠고기 생산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쇠고기 수입 수요 확대 등 브라질산 쇠고기를 둘러싼 해외의 움직임 또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sup>3)</sup>.

1) 이 글은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50.html](https://www.alic.go.jp/joho-c/joho05_001950.html))의 내용을 중심으로 번역·보완·수정하고 해설을 덧붙여 작성된 것이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명예선임연구위원, 「해외곡물시장동향」 편집인

2) 2016년 전후의 브라질 육우산업 현황에 대해서는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ppt자료), 2017.6.28.를 참조하기 바란다. 이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 농산물의 세계 랭킹은 생산량, 수출량 기준 그리고 세계시장 점유율을 순으로 쇠고기 2위, 1위, 33%, 닭고기 3위, 1위, 38%, 돼지고기 4위, 4위, 15%로 나타났다. 한편, 특히 코로나19가 브라질 닭고기산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3) 특히 코로나19가 미친 중국의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는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7편) 중국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상황을 바탕으로 브라질의 쇠고기 수급 동향을 정리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sup>4)</sup>.

이 글 중 환율은 2021년 12월 말 TTS시세인 1헤알=21엔=213.4원<sup>5)</sup>, 1미국 달러=116엔=1,189원을 사용하였다.

표 1 세계의 쇠고기 생산량, 수출량 상위 5개국(2020년)

생산량				수출량			
순위	국가(지역)	생산량(천 톤)	비율(%)	순위	국가(지역)	수출량(천 톤)	비율(%)
1	미국	12,389	21.5	1	브라질	2,539	22.6
2	브라질	10,100	17.5	2	호주	1,473	13.1
3	EU	6,883	11.9	3	미국	1,339	11.9
4	중국	6,720	11.7	4	인도	1,284	11.4
5	인도	3,760	6.5	5	아르헨티나	819	7.3
세계 전체		57,660	100.0	세계 전체		11,237	100.0

자료: USDA.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 4) 브라질의 곡물산업 관련 자료로는 허 덕, 김태련, ‘브라질의 대두 생산 : 미국·아르헨티나와의 비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12월호(10권 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그리고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1편)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2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전편)-생산은 마토그로소 주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3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후편)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는 북부 항~’,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농업 2019년 회고와 대두 생산의 위상’,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2월호(10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 5) 엔화 환율은 미즈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의 ‘월말·중순 평균 환율’을 원화 환율은 ‘환율플러스’ 앱을 이용하였다.

## 2. 브라질의 경제 및 농업 개황

### (1) 경제

브라질은 국토 면적이 일본의 22.5배, 한국의 85배로 세계 5위<sup>6)</sup>, 인구는 세계 제6위인 2억 1,300만 명, 국내 총생산(GDP<sup>7)</sup> 미국 달러)은 세계 제12위(이상 2020년)로 아르헨티나의 3.7배가 되는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이다.

브라질 지리 통계원(IBGE)에 따르면, 최근의 경제 상황은 2000년대 후반의 경기 확장기 이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2011년부터 2020년의 평균 실질 GDP 성장률은 0.3%였다. 2015년과 2016년에는 1996년에 현행 방식에 의한 통계를 시작한 뒤 처음으로 2년 연속 GDP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섰던 해였다.

하지만, 2017년 이후에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하고 있었지만(그림 1), 2020년에는 COVID-19 확산의 영향으로 GDP는 마이너스 4.1%로 가장 감소폭이 컸던 해를 기록하였다. 2021년에는 경제 회복이 예상되며, 제1분기에는 1.0%, 제2분기에는 12.4%로 플러스로 추이하고 있다.

1인당 GDP는 2011년 1만 3,296달러(154만 2,336엔, 1580만 8,944원)을 정점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9년에는 8,936달러(103만 6,576엔, 1,062만 4,904원)를 기록하였다.

### (2) 농업 개황

GDP에서 차지하는 농축수산업 비중은 2011~19년 평균으로 5.2%였다. 2020년은 농축산업 이외의 산업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면서, 농축산업은 콩과 커피 생산량이 증가하며 2.0% 성장을 유지하면서 그 비율은 6.8%로 확대되었다(그림 2).

6) 브라질은 면적 약 850만km<sup>2</sup>으로 면적 측면에서 세계 5위를 차지하는 나라이며, 동서로 4,319.4km, 남북으로 4,394.7km의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출처: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7)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한 나라의 영역 내에서 가계,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 주체가 일정기간 동안 생산한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한 것으로, 여기에는 비거주자가 제공한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에 의하여 창출된 것도 포함되어 있다. GDP는 당해 연도 및 기준년도 중 어느 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여 생산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명목 및 실질GDP로 구분된다. 명목GDP는 생산액을 당해년도 시장가격으로 평가한 것으로 물가상승분이 반영된 것이고, 실질GDP는 생산량에 기준년도의 시장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므로 가격 변동은 제거되고 생산량 변동만을 반영하게 된다. 이와 같이 GDP를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여 추계하는 것은 각각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경제의 전체적인 규모나 구조변동 등을 분석하고자 할 때에는 명목계열을 사용하며 경제성장, 경기변동 등 국민경제의 실질적인 생산활동 동향 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실질계열을 이용한다. 한편, 경제성장률(Economic growth rate)이란 일정기간 동안 각 경제활동 부문이 만들어낸 부가가치가 전년에 비하여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보기 위한 지표로서 한 나라의 경제 성과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이며 실질GDP의 증감률로 나타낸다. 현재 한국 GDP 통계는 UN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 국민계정체계(SNA :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어 분기별로 공표되고 있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 4.,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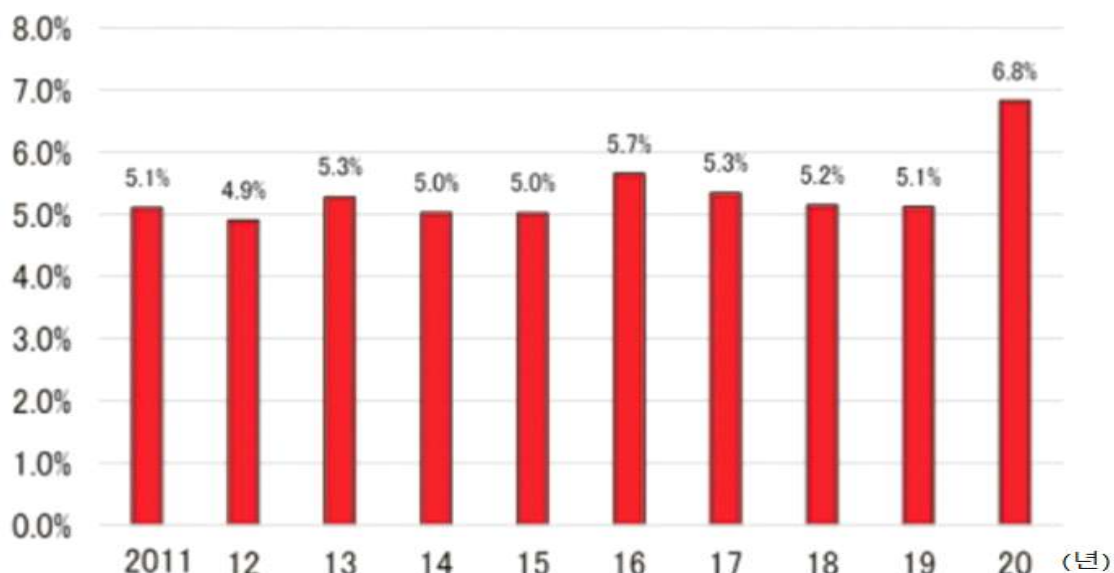
2021년에는 GDP가 플러스 성장이 추정되는 가운데, 농축산업은 1.9%의 성장으로 추정된다.

그림 1 GDP 성장률 추이



자료: IBG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2 GDP 중 농축산업이 점하는 비율



자료: IBG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 3. 최근의 쇠고기 수급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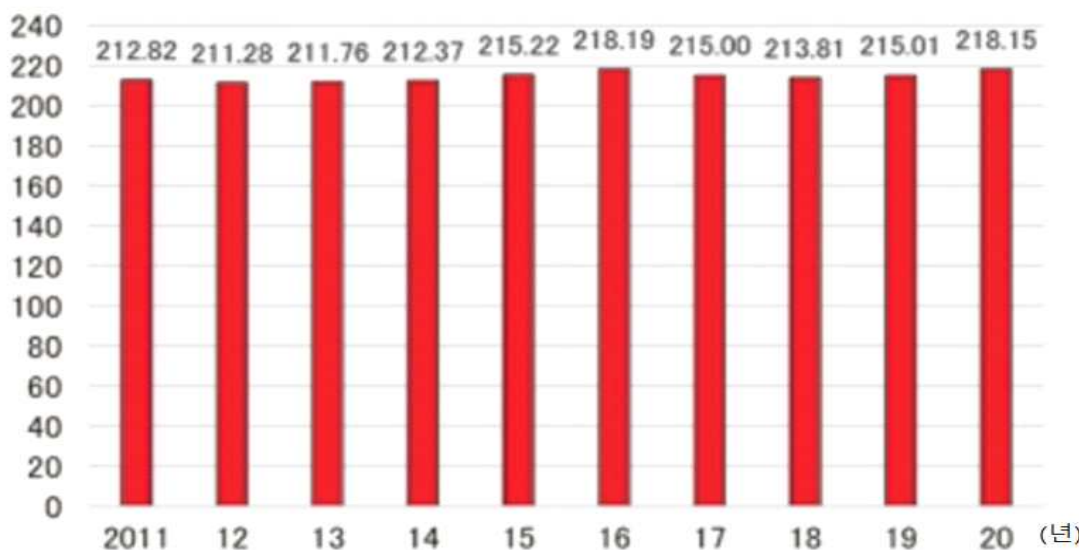
#### (1) 쇠고기 생산 동향

##### 가. 사육 마릿수

IBGE에 따르면, 2020년 브라질의 소 사육 마릿수는 전년 대비 1.5% 늘어난 2억 1,815만 마리를 기록하였다(그림 3). 2011년 사육 마릿수와 비교하면 2.5%로 조금 증가한 수준이지만, 지난 10년간 2억 1,100만~2억 1,800만 마리 수준에서 움직였던 것으로 보아, 정체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림 3 소 사육 마릿수 추이

(백만 마리)



자료: IBG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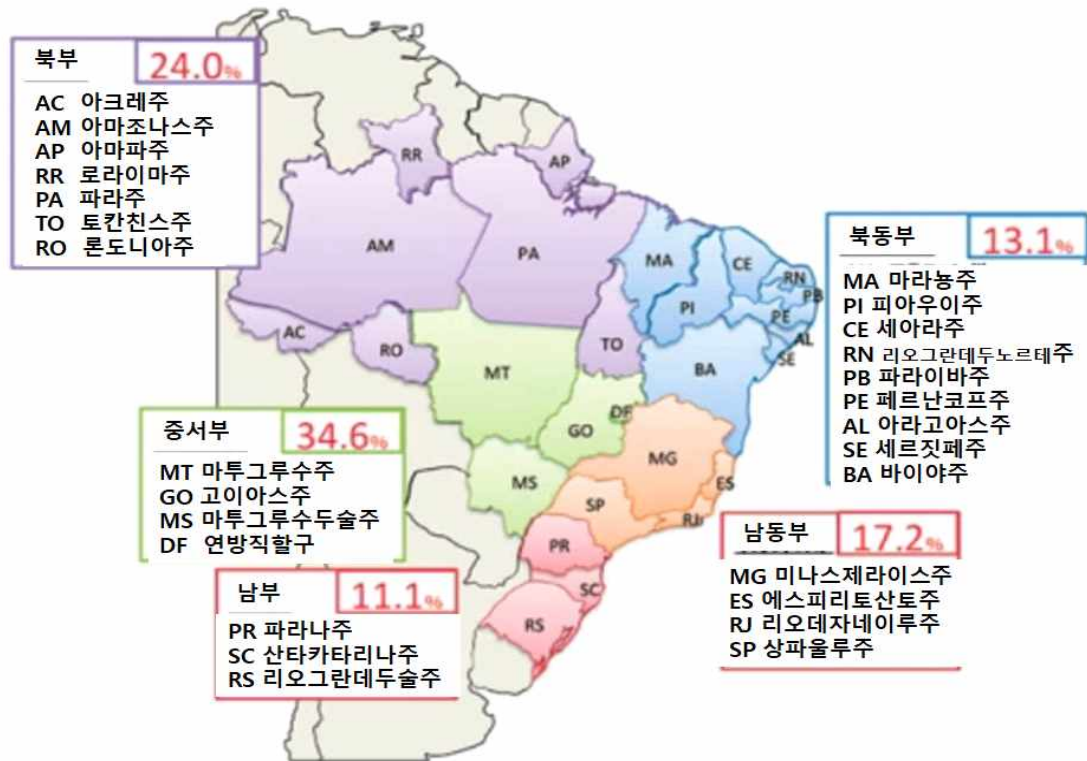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중서부가 최대의 육용우 사육 지역으로 사육 마릿수 전체의 34.6%를 차지하고 있다. 북부의 24.0%까지 합치면, 두 지역에서 총 사육 마릿수가 60% 정도를 차지한다. 이 밖에도 중서부 북부 지역이 증가 추세를 보이고, 남부의 육용우 사육 마릿수는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별로 보면, 중서부의 마투그루수 주가 최대이며, 고이아스 주(중서부), 파라 주(북부), 미나스제라이스 주(동남부)로 이어진다(그림 4, 5).

최근 10년간의 사육 마릿수 증감을 보면, 파라 주, 론도니아(혼도니아) 주, 토칸친스 주(이상 북부) 및 마투그루수 주(중서부) 등에서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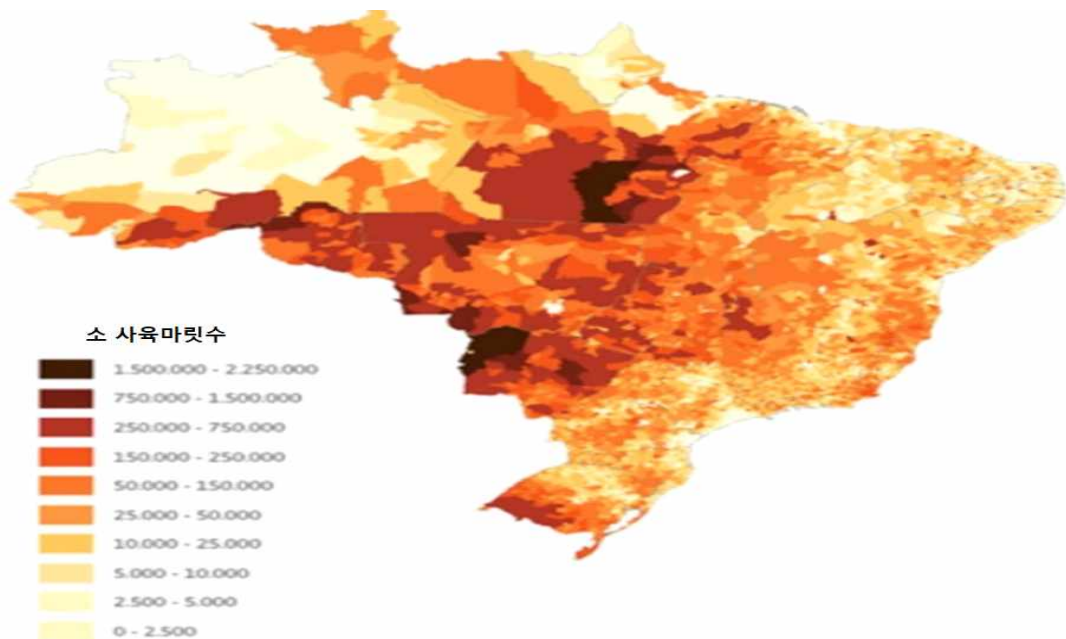
한편, 전통적인 농목지인 남부 리우그란데두술 주 외 마투그루수두술 주(중서부) 등에서 감소하고 있다(그림 6).

그림 4 브라질 행정구분 및 소 사육마릿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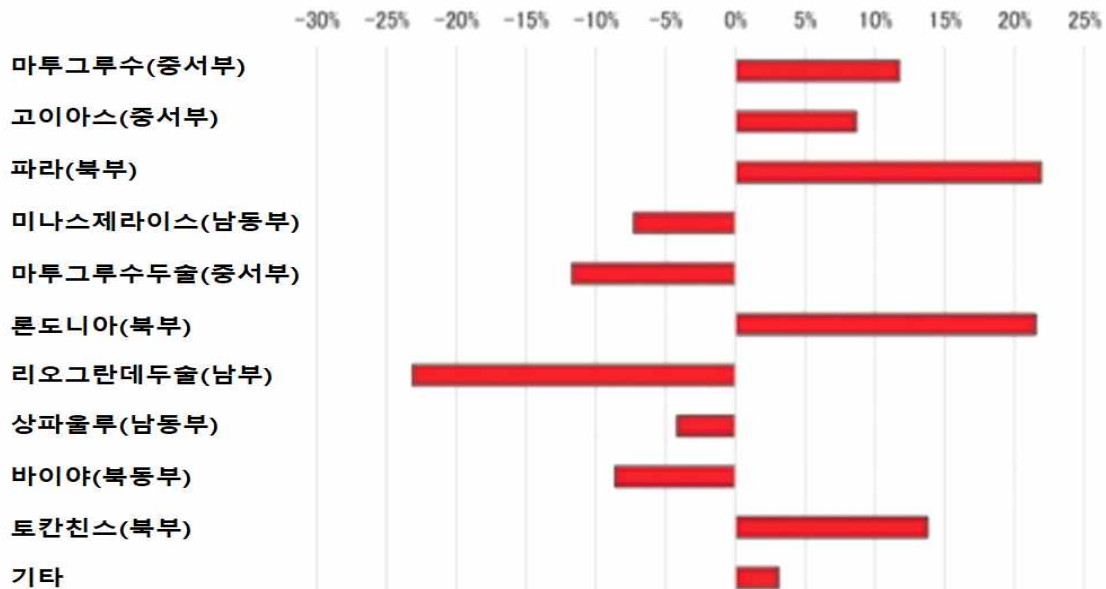
자료: IBGE 데이터를 기초로 ALIC 작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5 소 사육 마릿수 분포 상황



자료: Abiec.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6 2020년의 주별 사육 마릿수 증감(2011년 대비)



자료: IBG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브라질의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중서부 및 북부에 있는 마투그루수 주, 마투그루수두술 주, 파라 주에서의 육용우 생산은 아마존 바이옴(생물군계<sup>8)</sup>) 바깥쪽에 위치한 지역에서 사육되어, 값싼 토지 이용과 목재업자 등에 의한 삼림 벌채 등에 의한 목초지를 확대하였다.

#### 나. 목초지

IBGE에 따르면, 2016~18년 브라질의 목초지 면적은 1억 1,252만 ha로 2010~12년 이후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그림 7). 반면, 같은 해 농용지 면적은 6,648만 ha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때문에 같은 해 농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목초지 면적의 비율은 2010~12년보다 3.0%포인트 낮아진 62.9%를 기록하였다. 대두와 옥수수 생산이 증가하는 가운데, 목초지에서 농용지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다.

8) 바이옴(biome). F.E.클레멘츠가 1916년에 만든 용어이다. 사바나 등으로 나누어진 범위에 존재하는 생물의 군집단위를 말한다. 그 때는 일반적으로 생물군집을 가리켰으며, 그것이 서식장소와의 관련에서 일정한 구조를 가지고 극상으로 향하여 발전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1939년 V.E. 쉘퍼드 등이 제안한 후로는 식물군계에 대응하는 크기의 동물과 식물로 이루어지는 군집(생물군집: biotic formation)에 한정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클레멘츠와 쉘퍼드는 식물의 극상이 상관적(相觀的)으로 특징지을 수 있고, 또 동물의 영향중에 의해서도 식별되는 단위라고 규정하여, 명명에도 그 두 가지를 조합하였다. 예를 들면, Stipa-Antilocapra 군집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이것을 군집의 기본적 단위로 하는 경우는 없고, 오히려 기후구분에 의한 바이옴형으로서 유형 구분적으로 사용된다. 또, 동식물 간의 관계도 특별히 추구되는 일이 없으며, 주로 종류조성, 생활형 또는 생활형 조성(生活形組成) · 상관 등이 논의되는 경향이 짙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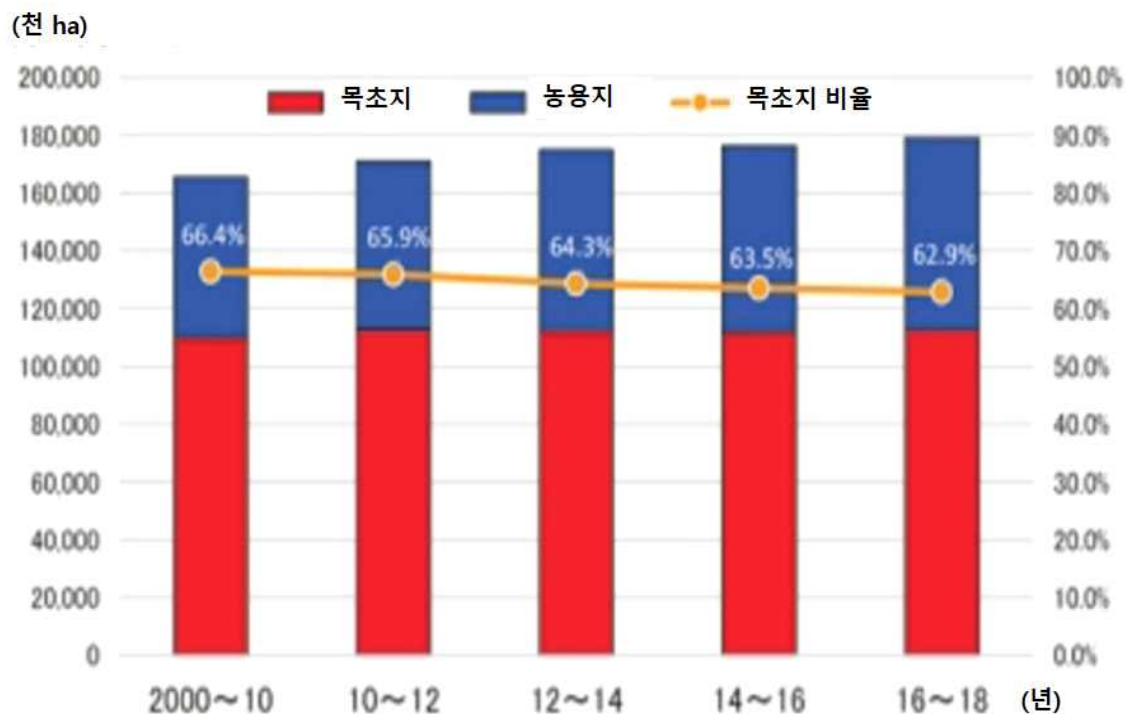


## 다. 쇠고기 생산

국가식량공급공사(CONAB)에 따르면, 2020년 쇠고기 생산량은 전년 대비 4.3% 줄어든 848만 3,000톤이었다(그림 8). 이는 2018~19년까지 수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암소 도축 마릿수가 늘어 2020년의 비육소우(素牛, 송아지<sup>9)</sup>) 공급이 부족하였으며, COVID-19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의 쇠고기 생산은 6~7년 주기로 알려진 캐틀 사이클(Cattle Cycle<sup>10)</sup>)의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15년에는 2011~13년의 암소 도축마릿수가 증가로 쇠고기 생산량은 감소하였지만, 2016년 이후에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그림 7 농지의 용도별 면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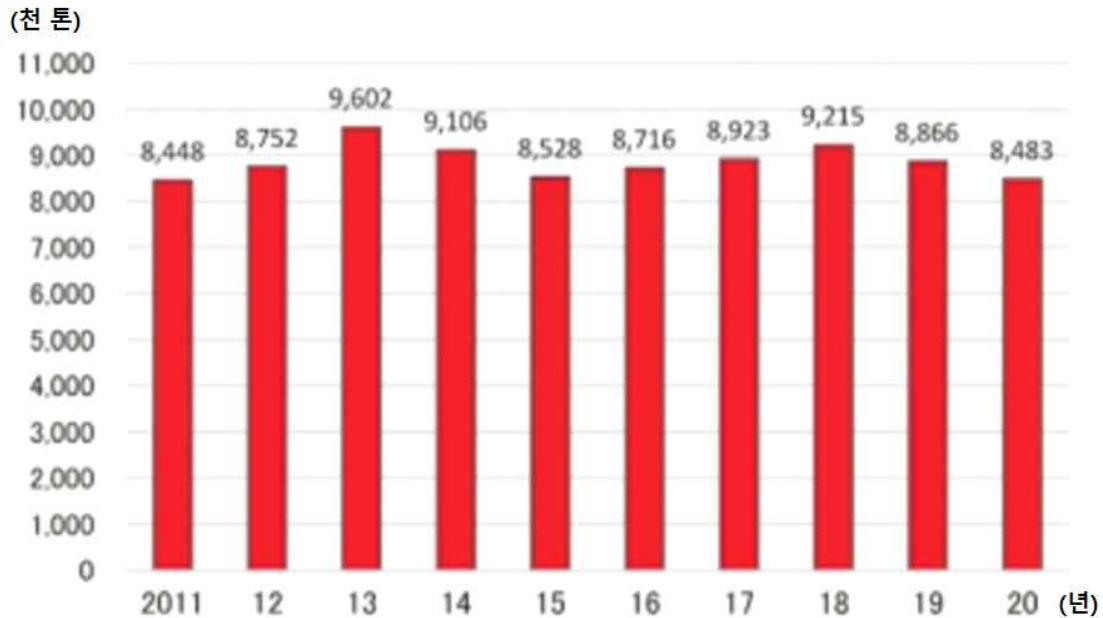
자료: IBG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브라질의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9) 브라질 육용우 경영에서 비육을 위한 소우(송아지)는 대략 7개월령 320kg 정도(세브게 네로레중)에서 거래된다.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의 육성우에 가깝기 때문에 송아지라는 표현 보다는 비육소우라고 표현하였다.(자료: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ppt자료), 2017.6.28.)

10) cattle cycle. 일반적으로는 10년 주기로 알려져 있다. 영세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그해 가격의 고저에 따라 더 심고 덜 심는 현상에 따라 다음해 공급과잉과 공급부족이 반복되는 주기 변동을 비롯하여, 더 나아가 축산물의 경우엔 2~3년 주기의 에그 사이클, 4~5년 주기의 피그 사이클, 10년 주기의 캐틀 사이클 등 특유의 주기 변동에 의해서도 가격 변동이 크다는 이론이 정립되어 있다. (네이버 블로그 애니웨어1, <https://blog.naver.com/anywear1/220148747616>)



그림 8 쇠고기 생산량 추이



주: 지육중량 기준

자료: CONAB,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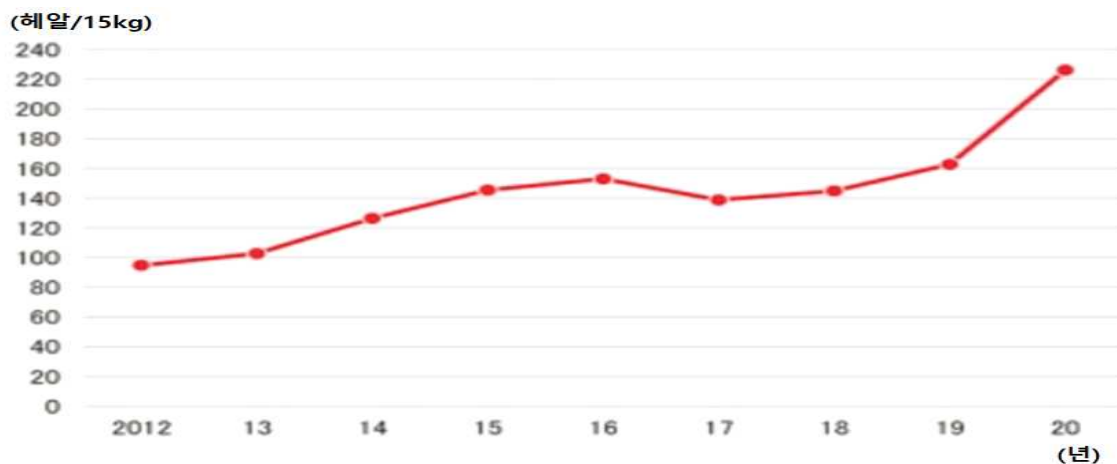
## (2) 육용우 거래 가격

상파울루 대학교 응용경제연구소(CEPEA)에 따르면, 2020년 도축된 육용우 거래 가격은 1아로바<sup>11)</sup>(브라질의 가축중량에 사용할 때는 15킬로그램)당 226.2헤알(4,750엔, 48,271원)로 전년 대비 39.0%나 대폭 상승하였다(그림 9).

2018~19년에는 성우 거래가격은 비교적 안정되게 유지되었지만, 2019년 11월에 가격이 급상승하였고, 그 이후에도 상승세가 계속되었다. 이는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로 쇠고기 공급이 어려워지자, 중국으로의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쇠고기의 국제가격이 상승한 영향에 의한 것이다.

11) 아로바(Arroba). 아로바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무게, 질량 또는 체적의 맞춤식 단위이다. 상징은 @이다. 아로바라는 단어는 아랍어 ar-rub' ( "رب" ) 또는 "퀴터"에서 유래했으며, 특히 당나귀가 운반할 수 있는 평균 하중으로 정의하였다. 체중일 때는 포르투갈에서는 32파운드(14.7kg), 스페인에서는 25파운드(11.5kg)와 같다. 이 단위는 여전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에서 코르크 상인과 돼지 사육 농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다. 중량 단위로서의 아로바와 무셀(15kg)이 유사하다. 이 단위는 여전히 브라질의 농업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들 국가에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현대의 미터법 아로바는 15kg(33lb)으로 정의된다.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에서 아로바는 11.5kg(25lb)에 해당한다. 볼리비아에서는 전국적으로 30.46리터(6.70imp gal, 8.05 US gal)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조사의 11.5리터(2.5imp gal, 3.0US gal)부터 바우어스의 16리터(3.5imp gal, 4.2US gal)까지 다양한 가치가 있다(출처: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https://en.wikipedia.org/wiki/Arroba>). 한편, 커피나 와인 등의 질량 단위로 쓰일 때는 스페인에서는 9.5kg, 포르투갈에서는 12kg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와인&커피 용어해설, 2009., 허용덕, 허경택, <https://terms.naver.com/>)

그림 9 육용우 거래가격 추이(상파울루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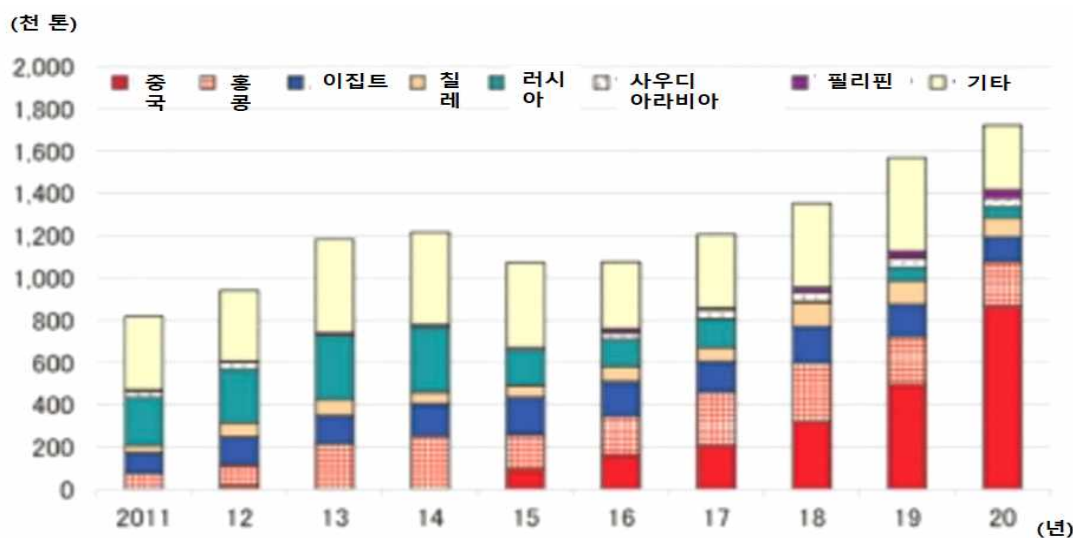


자료: CEPEA,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 (3) 쇠고기 수출 동향

2020년 쇠고기 수출량은 172만 4,200톤으로 전년 대비 9.9% 증가하였으며, 2016년부터 5년 연속 증가한 것이다. 이는 중국에서 중간층 부자들이 증가하고 있고, 미국 달러화에 대한 헤알화 약세 그리고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대체 수요 등에 의한 것이다(그림 10, 11).

그림 10 주요 수출대상국별 쇠고기 수출량 추이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sup>12)</sup>),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12) SECEX는 브라질의 대외무역사무국이다. 원문의 브라질 지리통계원은 대외무역사무국의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1 환율 상장(미국 달러화에 대한 헤알화) 추이



주: 각월 평균 selling rate 추이

자료: 미쓰비시UFJ Research and Consulting, 「현지참고 환율상장」.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2020년 수출량을 국가별로 보면, 2015년에 브라질에서 쇠고기 수입을 재개한 중국이 홍콩과 함께 수출량의 62.4%를 차지하는 등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과거 최대 수출국이었던 러시아로의 수출량은 2018년 11월 쇠고기 수입 중단 조치 해제 이후에도 예전만큼 수출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 (4) 쇠고기 국내 가격, 소비 동향

CONAB에 따르면, 2020년의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전년보다 9.7% 감소한 27.6kg이었다. 반면, 닭고기에 대해서는 전년대비 7.3% 늘어난 49.9kg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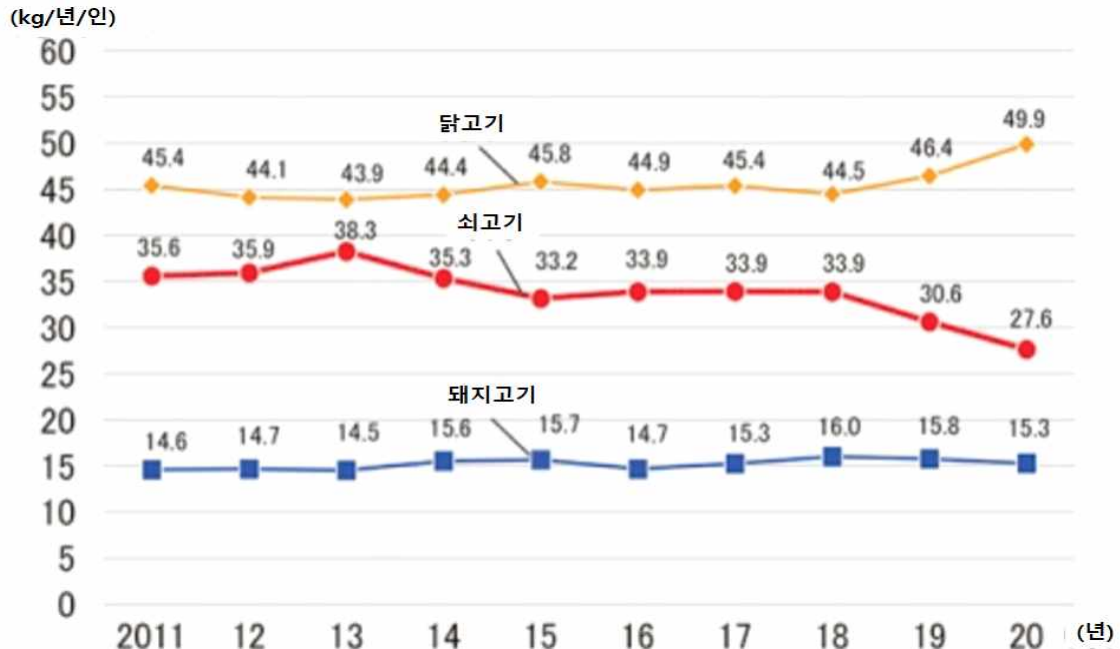
최근 쇠고기 소비량이 감소 추세를 보여 왔지만, 2019~20년의 소비량 감소 추세는 가속화되었다.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2019~20년에 소비량이 약간 감소하였다.

한편, 닭고기는 거의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지만, 2019~20년에는 쇠고기와 돼지고기와는 대조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2)

이러한 요인 중 중요한 것이 2020년의 식육 소매가격 변화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면, 쇠고기가 전년 대비 20.3% 상승, 돼지고기가 전년 대비 24.9%로 크게 상승한 데 비해, 닭고기는 전년대비 7.8% 상승이라는 완만한 상승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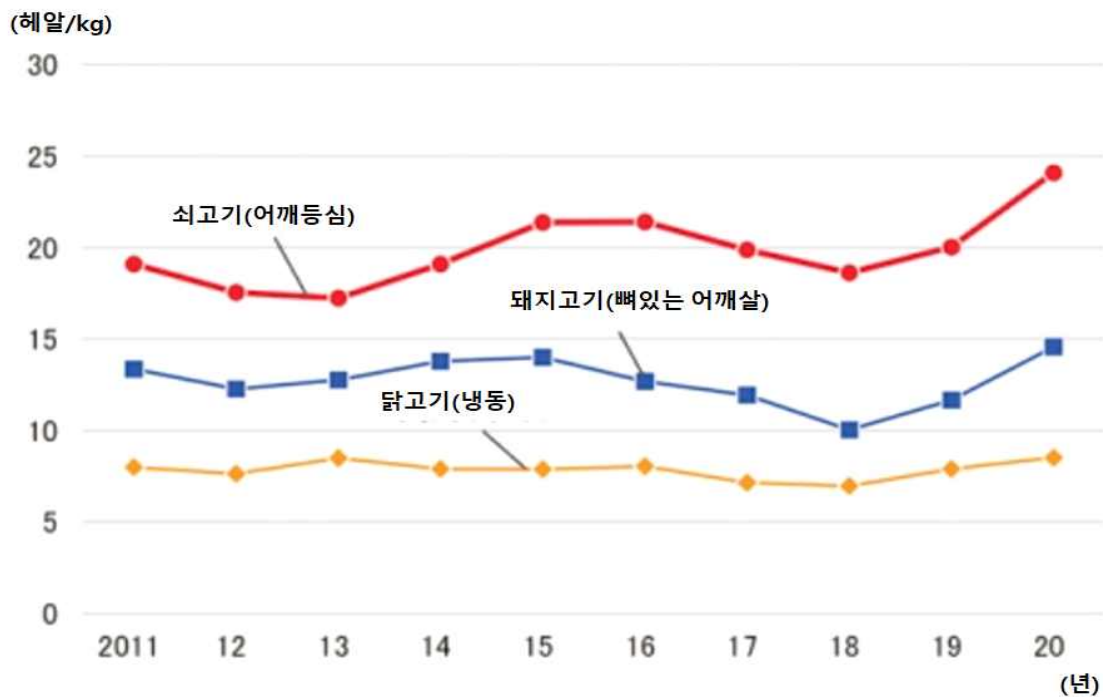
닭고기는 쇠고기나 돼지고기보다 값이 싸고 가격 상승률도 완만하였다는 점이 쇠고기나 돼지고기로부터 닭고기로의 소비로 이행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그림 13).

그림 12 식육의 연간 1인당 소비량 추이



자료: CONAB.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그림 13 식육 소매가격 추이(파라나 주)



주: IPCA로 인플레이션을 조정한 것임.

자료: 파라나 주 농업공급성(SEBAB).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 4.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의 현황과 영향

### (1) COVID-19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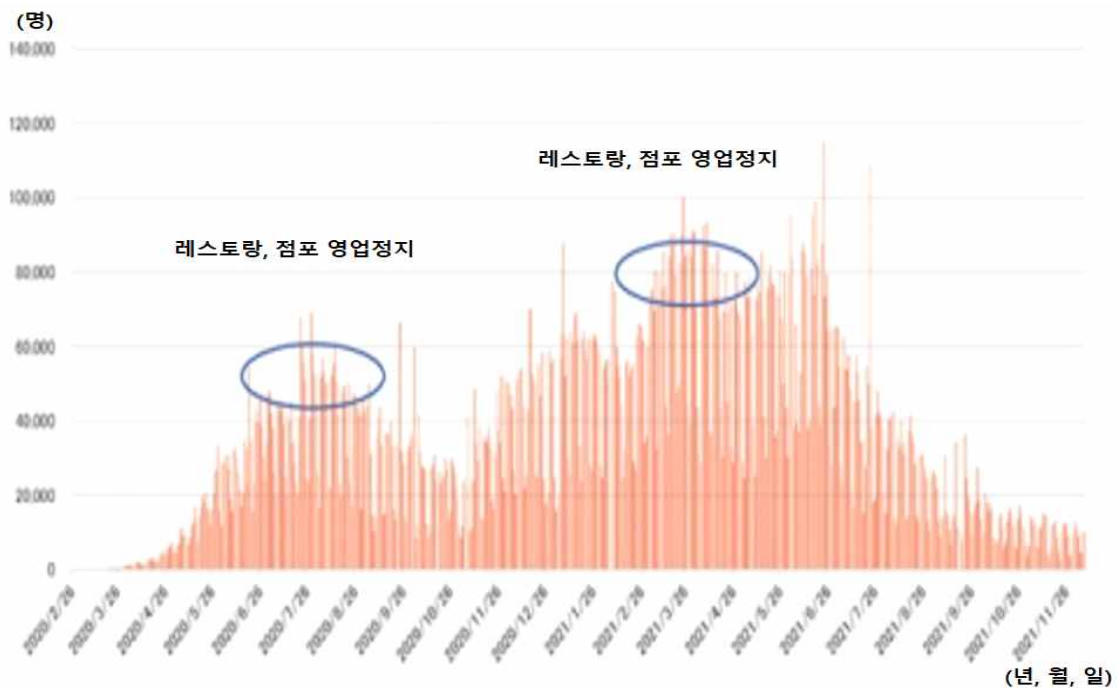
#### 가. 발생 상황

브라질의 COVID-19 감염자는 2020년 2월 말에 처음 확인되었다. 같은 해 4월 이후 감염자 수가 급속히 확대되어 7월경에 제1파의 절정기를 맞았다. COVID-19 대책에 의해 상파울루 주에서는 식당 등의 점포에서 대인영업이 금지되기도 하였다.

2021년 들어서는 델타( $\delta$ , Delta) 주의 감염 확대에 따라 3~6월경에 제2파를 맞이하였다. 그러면서, 3월에는 다시 점포에서의 대인영업이 금지되었다. 같은 기간 COVID-19가 지속되는 가운데, 2번의 피크가 있었으며, 6월 하순에는 하루 감염자 수가 10만 5,000명을 넘어섰다(그림 14).

그 후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7월 이후 신규 감염자 수는 감소하였으며, 12월 중순에는 하루 5,000명을 밑돌았다<sup>13)</sup>.

그림 14 1일단 신규감염자수 추이



자료: 브라질 보건성,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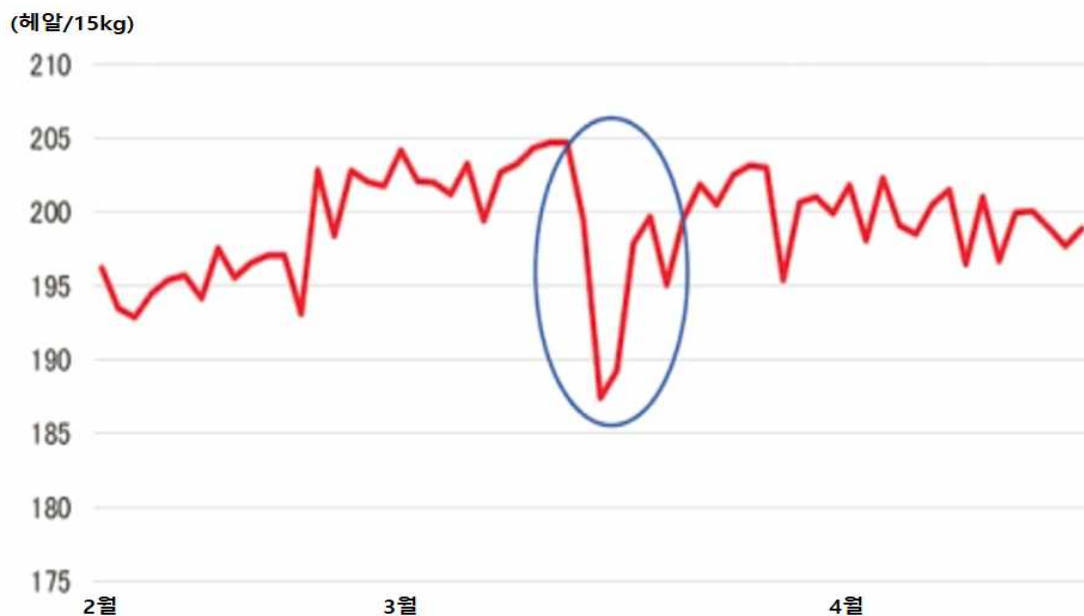
13) 이 후 오미크론( $\omicron$ , Sgr) 주가 확산되면서 2022년 2월 22일 14시 기준 신규 감염자 40,278명, 누적 확진자 28,258,458명, 사망률 2.3%, 사망자수 644,91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자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Johns Hopkins CSSE)

#### 나. 육용우 생산자에게 미친 영향

COVID-19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2020년 2~4월의 도축용 육용우 시세의 추이는 <그림 15>와 같다. 외식산업으로의 영향이 우려되면서 3월 중순 일시적으로 가격은 하락하였다. 하지만, 그 뒤에는 회복 추세를 보이고 있다.

커피 생산 농가 등에서는 일시적으로 노동자 확보 문제가 화제가 되었지만, 육용우 생산자에서는 이러한 상황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COVID-19의 영향은 크게 없었다고 보고 있다.

그림 15 육용우 거래가격 추이(2020년 2~4월, 상파울루 주)



자료: CEPEA,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 다. 식육 처리장에 미친 영향

브라질 농목식량공급성(MAPA), 경제성(ME) 및 보건성(MS)은 2020년 6월 19일 공동으로 도축장이나 유제품 공장 등의 COVID-19 감염을 방지·관리·억제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한 성령을 발령하였다.<sup>14)</sup> 성령 발령의 결과, 도축장에서는 이들 대책에 따른 추가적인 투자 경비의 증가나 생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비용 증가로 이어졌다.

14) 이에 대해서는 농축산업진흥기구, ‘食肉処理場など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ガイドラインを定めた省令を公布(ブラジル)(식육 처리장 등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한 규칙을 공포(브라질))’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 25일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5.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5.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브라질 농목식량공급성 농목방역국 동물제품검사부(DIOPA/SDA/MAPA)의 월레 보고서에 따르면, COVID-19에 관련하여 노동공안국(MPT)이 식육처리장에 대한 종업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이 불충분하다며 지방법원에 고소하였다. 지방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업정지 명령이 내려지면서 몇몇 시설에서는 일시적인 조업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외에 다른 식육 처리장에서는 도축 대상 소의 감소에 따른 가동을 저하에 의해 일시적인 조업 정지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미국에서 볼 수 있었던 처리 시설 내에서의 대규모 감염에 의한 공장폐쇄 등과 같은 생산에 큰 영향은 보이지 않았다. 브라질에서는 식육 처리장이 전국으로 분산하고 있고 처리장 규모가 비교적 작다는 점 등이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라. 국내 가격, 소비 동향

2020년 3월에는 브라질의 각 주, 시에서 COVID-19 대책으로서 식당에서 점내 음식의 섭취 금지, 택배와 주문만으로 영업과 같은 제한 조치 등을 강구하였다. 쇠고기 고급 부위의 주요 소비처인 슈하스카리아(churrascaria<sup>15)</sup>)나 스테이크점 등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들 쇠고기는 소매점으로 유도되었다. 하지만, 소매점만으로는 모든 상품을 처리하지 못하고 할인 판매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예를 들면, 고급육인 필레미뇽<sup>16)</sup>에 대해 소비자 물가지수(IPCA)로 보면, 식당이 재개된 5월까지의 가격은 제한조치 실시 전에 비해서 약 20% 떨어졌다. 한편, 슈퍼마켓은 업체에 대한 영업규제나 재택근무 증가로 매출이 증가하였다.

육용우 거래가격을 보면, 음식점 영업정지가 시작된 2020년 3월 중반에 일시적으로 크게 떨어졌다. 또 이 시기에는 식육 메이커가 수요 감소를 전망하여 원료에 대한 매입을 보류하거나 일부 조업을 정지하였다.

15) 슈하스코(Churrasco)는 브라질의 카우보이들이 소의 각종 부위를 토막 내어 부위별로 꼬챙이에 끼워서 숯불에 구워 먹던 요리에서 유래되었다. 특히 엉덩이에 붙은 살인 소의 우둔살은 브라질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라고 한다. 돼지고기, 닭고기, 각종 소시지 등 고기 종류는 모두 이렇게 해 먹을 수 있다. 시설 형태에 따라 꼬챙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철판을 활용하기도 하고, 취향에 따라 야채나 빵 같은 것을 같이 굽는 걸 보면 한국식 고기 구워먹는 문화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며, 브라질 가정집에도 이 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브라질에서는 슈하스코를 취급하는 식당을 슈하스카리아(Churrascaria)라고 한다.(출처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16) 필레미뇽(FILET MIGNON)은 흉곽 안에 위치한 소나 송아지의 길쭉한 여러 근육 덩어리로 등 척추뼈의 시작부분을 따라 위치하는 작은 부위이다. 기름을 떼고 손질한 필레미뇽 한 개는 1-2인분 정도의 스테이크 분량이다. 다듬지 않은 상태로는 뷔프 부르기뇽(프랑스 가정식 갈비찜) 용으로 사용한다. 아주 연하고 풍미가 좋은 고급 부위이다. 돼지와 노루에서도 필레미뇽 부분을 요리에 자주 사용한다. 돼지의 필레미뇽은 쇠고기의 안심 부분과 일치한다. 메다이용(médailon)이란 송아지 안심심이나 설도 부위 허벅지 살을 도톰한 두께의 그리 크지 않은(약 6-7cm) 동그란 모양으로 슬라이스한 조각을 그르나댕(GRENADI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메다이용(médailon), 미뇽(mignon), 누와제트(noisette)라는 이름으로도 불린다. 한편 4-5mm 두께로 슬라이스한 송아지 고기는 피카타(piccata)라고 한다)로 동그랗고 도톰하게 잘라 오븐에 굽거나 팬에 지져 익힌다. 또는 작은 크기로 잘라 꼬치에 꿰어 굽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투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https://terms.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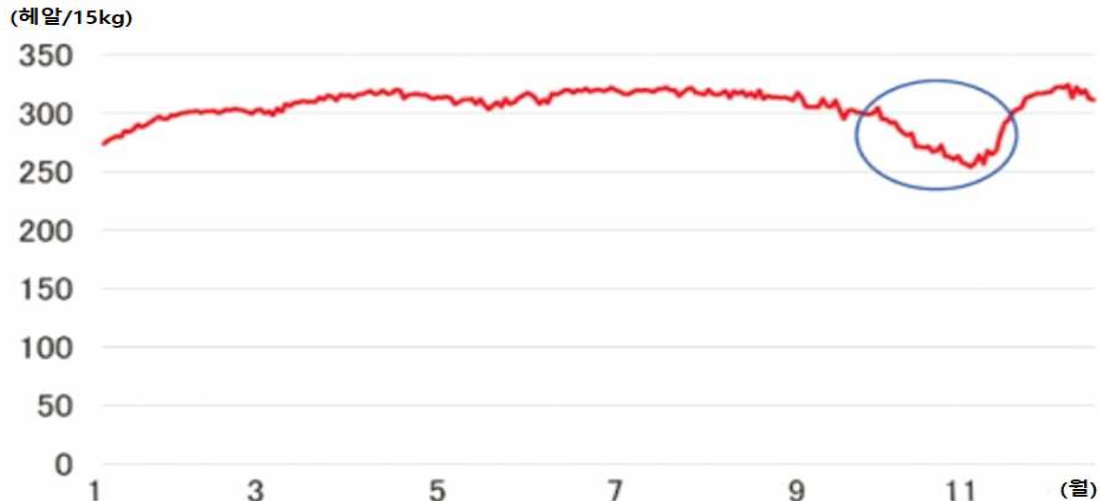
## (2) 비정형 BSE<sup>17)</sup>(소 해면상뇌증, 광우병) 확인

2021년 9월 4일에는 중서부 마투그루수 주 및 동남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에서 각각 1마리에서 비정형 BSE 개체가 확인되었다. 이 때문에 브라질 정부는 중국과 가축위생에 관한 협정에 근거하여 중국에 대한 쇠고기 수출을 중단하였다.

바로 직후인 2019년 5월에는 마투그루수 주에서 비정형 BSE 개체가 확인되었지만, 쇠고기 수출 중단은 2주일 정도 후에 해제되었다. 당초 이번 케이스에서도 단기間に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고 있었다.

하지만, 쇠고기 수출중단 기간은 3개월 이상에 달하였다. 그 사이, 육용우 거래가격 하락 등 국내외 쇠고기 수급에 큰 영향이 나타났다(그림 16).

그림 16 육용우 거래가격 추이(2021년, 상파울루 주)



자료: CEPEA,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또한 브라질은 BSE 발생 리스크가 낮은 나라로서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무시할 수 있는 리스크(광우병 위험 무시국)’의 위상을 인정받고 있다<sup>18)</sup>.

17) 비정형BSE는 정형BSE와는 발생부위와 원인체가 다르다. 정형BSE는 뇌간에서 주로 발생하고 원인체의 분자량이 중간 수준인 데 비해, 비정형BSE는 소뇌에서 발생하고 원인체의 분자량이 높거나 낮다. 발생원인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소의 노화과정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까지 발병한 소의 평균 월령이 1백44개월에 이를 정도로 늙은 소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발생 빈도도 매우 낮다.(출처: 대한민국 체육관광부, ‘미국산 젓소가 걸린 비정형BSE는 무엇인가’, 「공감」 2012.05.01.자 기사)

18)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수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국제적인 축산물 교역은 OIE가 정하는 위생기준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다. ‘광우병(우해면상뇌증, BSE)’은 소의 뇌에 생기는 신경성 질환으로 광우병에 걸린 소를 먹었을 때 인간광우병(변형 크로이츠펔트-야콥병, vCJD)이 발병할 수 있기 때문에 OIE는 광우병과 관련해 위험등급별 세부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OIE에서 권장하는 광우병 검사 기준은 생후 30개월 이상 된 소를 100만 마리 정도 기르는 나라에 대해서는 매년 최소 99건을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광우병 의심 사례가 단 1건이라도 발생하면 해당국에서 수입을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계동물보건기구(WAHO, 국제수역사무

### (3) 구제역 위상 재검토

OIE는 2021년 5월 브라질의 6곳을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할 것을 결정하였다.<sup>19)</sup> 이번 인증된 곳은 남부 파라나 주, 리오그란데두술 주 북부 아크레 주, 론도니아 주 전역 및 북부 아마조나스 주와 중서부 마투그루수 주의 일부이다. 2007년에 인정을 받은 남부의 산타카타리나 주를 포함하면, 5개 주 전역 및 2개 주 일부가 인정을 받은 것이다(그림 17).

그림 17 구제역 청정지역(2021년 5월 현재)



자료: OI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국)로부터 브라질 남부 파라나 주에서 연령 13년인 소 한 마리가 2010년에 광우병으로 죽었다는 사실을 전해들은 일본은 2012년 12월 8일부터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다. 한국 역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였다. OIE는 ‘광우병’과 관련해 세계 각 나라와 지역을 3단계로 나누고 있다. ① 1등급(negligible BSE risk, 광우병 위험무시국) : 광우병 위험이 거의 없는 국가이다. ② 2등급(controlled BSE risk, 광우병 위험통제국) : 광우병의 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로 뇌, 척수 등 특정위험물질만 제거하면 소의 연령이나 부위에 제한 없이 수출이 가능하다. ③ 3등급(undetermined) : 위험도를 측정할 수 없는 국가. 위 1·2등급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 위 등급은 매년 5월에 발표된다. 1등급 청정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소 등 반추(되새김)동물류의 육골분이나 지방을 급여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어야 하고 ▲7년 이상 일정조건(200만 마리당 195마리 등)의 검사를 통해 비 발생을 인정받아야 하며 ▲국가 내 전염성 해면상뇌증(TSE) 관련 모든 동물의 역학조사를 통해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19) 농축산업진흥기구, ‘「口蹄疫ワクチン非接種清浄地域として6地域を追加(ブラジル)(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6개 지역을 추가(브라질))」,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 6월 7일자,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5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59.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지역에서 사육되는 가축은 소의 21%(4,700만 마리) 및 돼지 51%(2,100만 마리)에 해당한다<sup>20)</sup>(표 2). MAPA에서는 이번 OIE의 인정은 브라질의 쇠고기·돼지고기의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대응과 이미 참가하고 있는 시장 수출 확대 등에 여러 가능성을 열 것이라고 밝혔다.

돼지고기 업계에서는 이 결정에 의하여 2022년 돼지고기 수출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쇠고기에 대해서는, 향후 거래가격 상승 등이 기대되지만, 쇠고기는 돼지고기와는 달리 생산 주기가 길어, 수출물량 확대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루고 있다.

표 2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에서의 소 및 돼지 사육 마릿수(2020년)

지역		소		돼지	
		마릿수(두)	비율(%)	마릿수(두)	비율(%)
브라질		218,150,298	100.0	41,124,233	100.0
	론도니아	14,804,398	6.8	163,084	0.4
	아크레	3,802,112	1.7	160,7085	0.4
	파라나	8,584,939	3.9	6,944,541	16.9
	산타카타리나	4,532,618	2.1	7,805,614	19.0
	리오그란데두술	11,128,019	5.1	5,859,508	14.2
	아마조나스(일부)	1,007,638	0.5	37,126	0.1
	마투그로수(일부)	2,757,557	1.3	33,851	0.1
	백신비접종청정지역합계	46,617,281	21.4	21,004,402	51.1

자료: IBG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 (4) 온실 가스 감축 대책

브라질 정부는 온실효과가스(GHG) 저감 대책으로서 2010년에 ABC계획<sup>21)</sup>을 수립하고, 2020년까지 10년간 실시하였다. 또 2021년 4월에는 이에 이은 2030년까지 ABC+ 계획을 공표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시작하기로 하였다.

20) 아마조나스 주, 마투그루수 주에 대해서는 이번 인증된 일부 지역의 사육 마릿수이다.

21) 이에 대해서는 농축산업진흥기구, ‘2011/12年度農業プランがスタート(ブラジル)-持続可能型農業の推進がポイント-(2011/12년도 농업 계획이 스타트(브라질)-지속 가능형 농업 추진이 포인트-)’,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 7월 19일자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043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0431.html))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계획에서는 목초지 회복, 작물·가축·삼림의 통합(ILPF)과 애그로포레스트리 시스템(임업, SAF), 불경운 재배 시스템, 질소고정, 식림, 가축배설물 처리와 같은 대책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계획에 의거하여 2020/21년에는 전년도의 2배 이상인 50억 5,000만 헤알(1,061억 엔, 1조 776억 7천만 원)의 예산이 조치되었다.

또한 MAPA에서는 세계 인구 증가에 의한 식량 증산을 세계적인 과제로 삼고 있음을 감안하였다. 이에 따라, 장래 육용우 생산을 다음과 같이 추정하고, 그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다.

- 곡물 생산량은 2020/21년도 2억 6,213만 톤에서 2030/31년도에는 3억 3,317만 톤으로 27.1% 증가
- 삼림 보호의 관점에서 새로운 농지 개발은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목장에서 농지로 전환에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 반면, 쇠고기 생산량은 2020/21년 831만 3,000톤에서 2030/31년도에는 972만 8,000톤으로 17.0% 증가
- 육용우 생산에 대해서는 단위 면적당 사육 마릿수가 증가, 효율적인 피드롯(Feed-lot, 곡물비육장<sup>22)</sup>) 생산 확대에 따른 대응

## (5) 자유무역협정(FTA)

브라질은 브라질 단독으로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입하지 않고, 남미 6개국으로 구성된 남미남부공동시장(메르코수르, Mercosur<sup>23)</sup>)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다. 독립행정법인 일본 무역진흥기구(JETRO)에 따르면, 메르코수르는 볼리비아(1997년 서명), 안데스 공동체(CAN, 2005년 서명), 페루(2005년 서명), 이스라엘(2009년 서명), 팔레스타인(2011년 서명)과 FTA협정을 체결하였다.

또 EU와는 2016년 6월 27일 FTA체결에 정치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렇지만, EU 역내에서는 브라질의 환경파괴, 특히 아마존 삼림의 불법벌채가 문제시되고 있어, 비

22) 곡물비육장(feedlot, 肥育場). 울타리를 치고 주로 농후사료를 급여하여 가축, 특히 소를 비육시키는 노천사육장. 육우비육장.(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23) 메르코수르(Mercosur).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개국 경제 공동체. 남미 국가 간 무역장벽을 없애기 위해 1995년 창설되었으며, 2012년 베네수엘라가 정식 가입하여 정회원국이 5개국으로 늘었다가 2017년 8월 5일(현지시간)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창립회원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해 민주주의가 복구될 때까지 회원자격을 정지한다고 결정함으로써 4개국으로 다시 줄게 되었다. 메르코수르는 남미 전체 면적의 62%, 인구의 70%, GDP의 80%(약 2조 8,000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메르코수르는 역외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외공동관세(TEC)를 부과하고 있다. 메르코수르 회원국들은 창설 30년이 다 될때까지 의미 있는 FTA를 체결하지 못하다가, 2019년 6월 28일 유럽연합(EU)와의 자유무역협상을 타결지었다. 메르코수르와 EU는 1999년 FTA 협상을 시작했으나 시장 개방을 둘러싼 견해차를 보이며 사실상 중단되었다가, 2016년부터 협상을 재개했으며, 2019년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적극적으로 나선 끝에 2019년 6월 EU와 FTA 협상 초안에 합의하였고, 2019년 8월말에는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과 FTA체결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아마존 열대우림 산불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브라질 정부의 환경정책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 FTA 체결이 불투명해졌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search.naver.com/>)

준에 필요한 회원국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도 메르코수르는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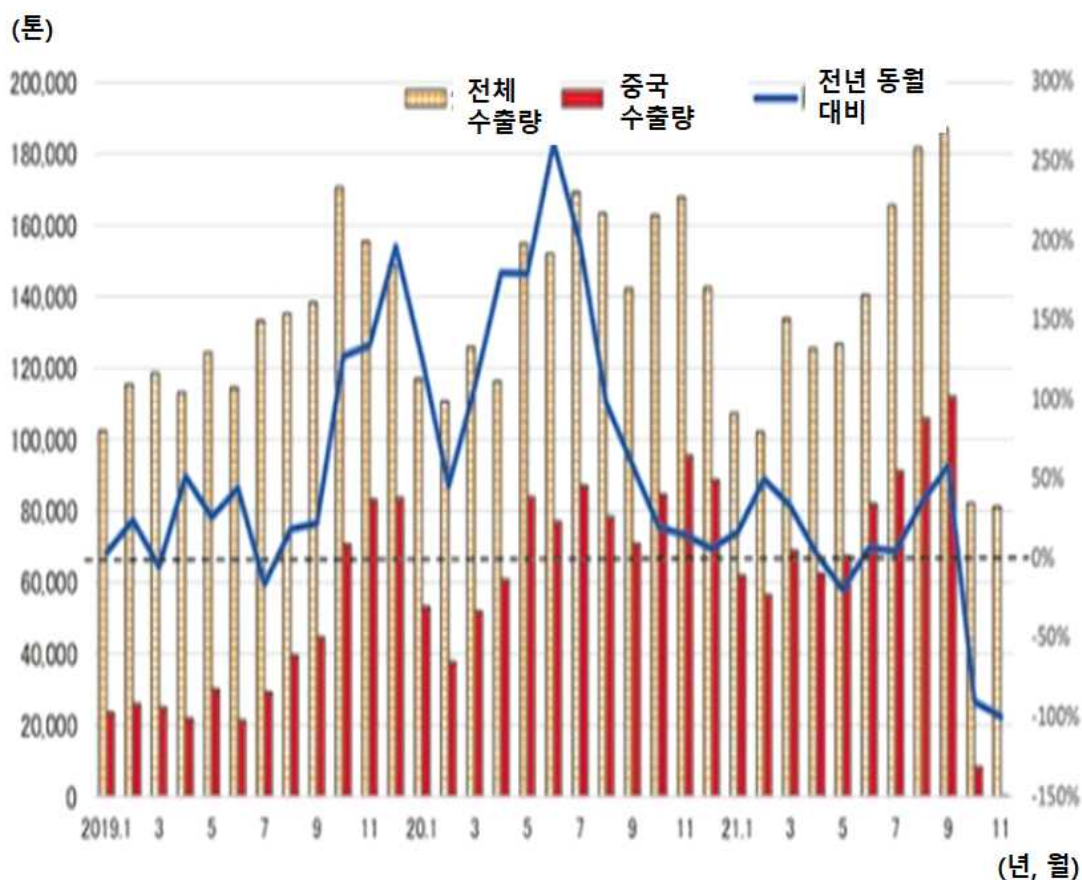
## (6) 주요 수출 상대국 동향

### 가. 대 중국 수출

최근 브라질 쇠고기 수출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최근 중국으로의 쇠고기 수출 물량을 보면, 2019년 후반부터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8).

이는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에서의 중간 부자 계층의 증가, 미국 달러화에 대한 헤알화 약세와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대체 수요 등에 의한 것이다, 이 상황은 2021년 들어서도 대체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그림 18 중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량 추이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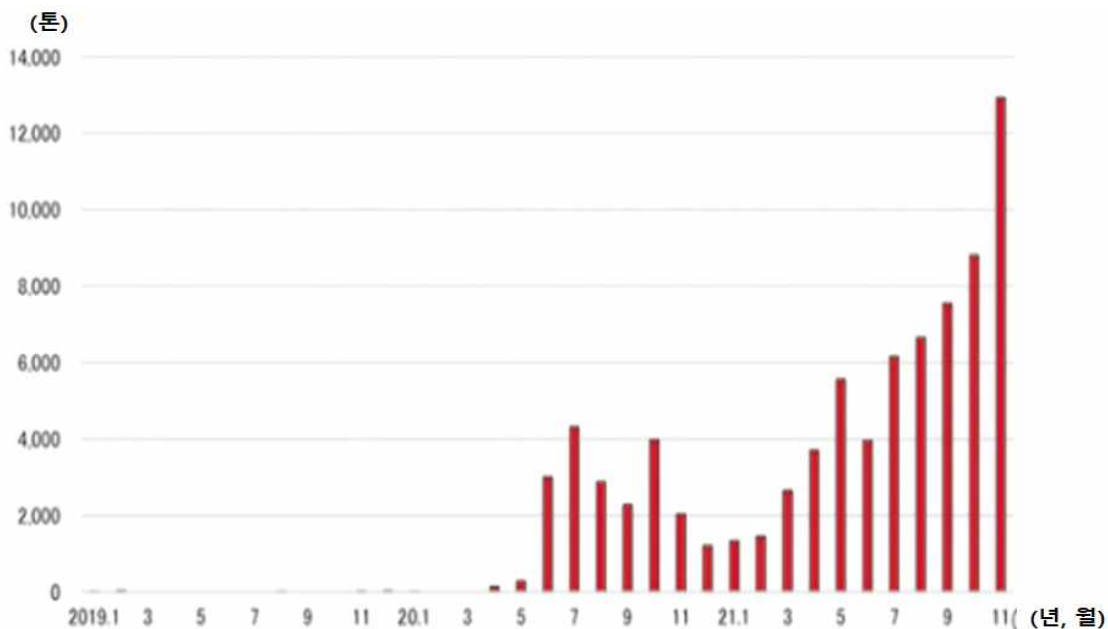
이러한 가운데 중국에서는 2020년대 들어 COVID-19 확산으로 연초에는 중국의 향만으로 화물이 체류하면서 일시적으로 무역에 대한 영향이 발생하였다. 또한, 외출제한 등으로 쇠고기 수요의 중심이었던 외식용 수요도 감소하였다. 이 밖에도 수입된 브라질산 육류의 포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었다며 브라질의 몇몇 식육 처리장에서 중국 수출이 정지되었다.

또,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브라질에서 비정형 BSE 발생으로 중국 쇠고기 수출이 중단되었다. 2021년 10월 이후의 대중 수출물량은 전년 동월과 비교하여 급감하였다. 이 쇠고기 수출중단 조치는 2021년 12월 15일에 양국 간 합의에 의하여 해제되었다.

## 나. 대 미국 수출

미국으로의 쇠고기 수출은 2016년 8월에 수 년 동안 지속되었던 수출 중단 조치가 해제되었지만, 2017년 6월에 위생상의 문제로 다시 수출 중단 조치가 강구되었다. 그 후 2020년 2월에 조치가 해제되어, 2021년 1~11월 수출 물량은 6만 71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배 급증하였다. 미국은 중국, 홍콩, 칠레에 이어 제4위의 수출 대상국이다(그림 19).

그림 19 미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량 추이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브라질산 쇠고기는 미국시장에서는 주로 햄버거 패티 등 가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호주, 뉴질랜드와 우루과이산 쇠고기가 미국시장에서 경쟁 상대가 된다.



또한, 미국 쇠고기 수출에 대해서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처럼 개별적으로 저관세 쿼터물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브라질은 ‘기타 국가’에게 주어진 6만 5,005톤의 저율관세 쿼터를 이용하게 된다. 적용되는 세율은 쿼터 내에서는 1kg 당 4.4미국 센트(5.1엔, 52.3원), 쿼터 외에서는 26.4%가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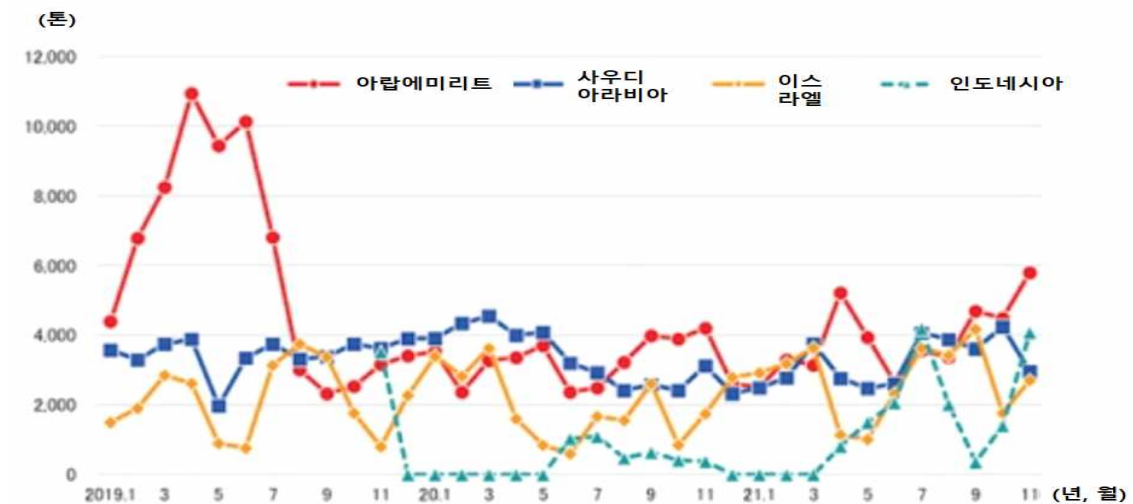
#### 다. 대 중동 등

중동 등으로 수출되고 있는 쇠고기 수출량에 대해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2020년 수출물량 4만 톤), 아랍에미리트(동 3만 9,000톤), 이스라엘(동 2만 4,000톤) 등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그림 20).

브라질은 할랄(Halal<sup>24</sup>) 인증된 식육처리시설에서 수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들 지역의 주요 쇠고기 공급 국가이다. 브라질 정부는 수출업체의 다양화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할랄시장을 비롯한 관련국들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 결과, 2019년에는 인도네시아, 2020년에는 쿠웨이트로의 쇠고기 수출이 시작되었다.

또, 정육회사의 현지 진출도 진행되고 있다. 대형 정육회사의 하나인 BRF 사는 2014년 아랍에미리트에 도축시설을 설립하여 닭고기 제품 외에도 쇠고기 햄버거 제품 등을 제조하고 있다.

그림 20 주요 중동지역 등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수출량 추이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年 2月号에서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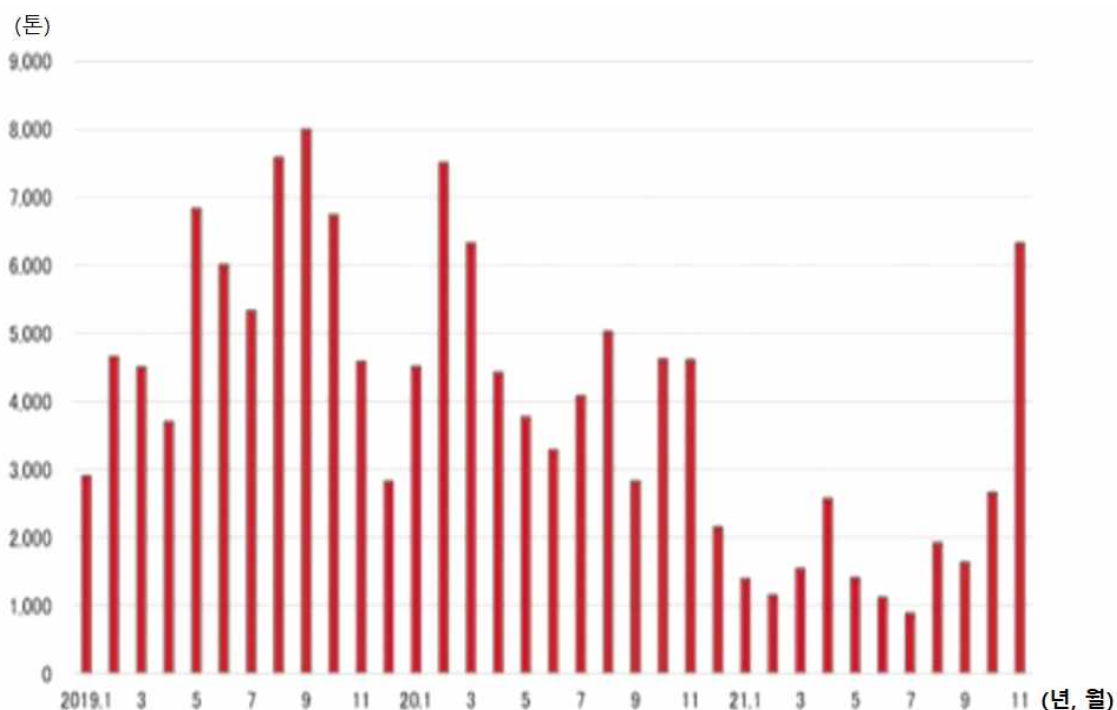
24) 할랄(HALAL). 할랄 또는 할랄푸드에서 말하는 할랄은 ‘허용된’ 또는 ‘적법한’이라는 의미의 아랍어로 이슬람교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허용된 식품을 지칭한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유대교의 코셔(Kosher, 전통적인 유대교의 율법에 따라 식재료를 선택하고 조리한 음식을 일컫는 말로, 사전적으로는 ‘적당한, 합당한’이란 뜻)에 견줄 수 있는 이 할랄 식품 규정은 돼지, 피, 이슬람교 율법 의식에 따라 도살되지 않은 모든 동물과 술을 금한다. 프랑스에서 할랄 육류 인증은 국가 소관인 아니며 파리, 에브리, 리옹 지역의 이슬람 사원에서 관할하고 있다. 반대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하람(“금지된”이라는 뜻)이라고 하고 이는 하렘과 같은 어원을 갖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https://terms.naver.com/>)



## 라. 대 러시아

러시아로 수출되는 쇠고기는 2014년에 30만 9,000톤을 기록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브라질 쇠고기의 최대 수출국이었다. 그러나, 2015년 러시아 경제 악화를 계기로 수출물량이 줄었고, 2017년 12월에는 브라질산 쇠고기에서 러시아에서 사용이 금지된 락토파민<sup>25)</sup>이 검출되었다며, 대부분의 도축장에서 수출이 중단되었다. 그 결과 2020년 러시아로의 수출량은 5만 3,000톤이 되었다(그림 21).

그림 21 러시아 수출용 쇠고기 수출량 추이



자료: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에서 재인용

그 후 2021년 10월에는 2018년 10월에 이어 쇠고기 처리 시설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일부 풀렸다. 아울러, 러시아 정부는 2021년 12월에 자국 내 인플레이션 억제 대책으로 브라질산 쇠고기에 대해서 2022년에 20만 톤을 무세로 관세 쿼터를 부여한다고 공표하여, 향후 러시아 수출 회복이 예상된다.

25) 락토파민(ractopamine). 베타-아드레날린 작용성 촉진제의 하나이다. 가축의 단백질 합성 증가, 지방질 분해 촉진, 몸무게 증가, 사료 효율 따위를 증가시킨다. 동물의 조직에 흡수와 제거가 빨라 10일이 지나면 잔류량은 거의 없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사전, <https://terms.naver.com/>)

## 5. 과제 및 향후 전망

### (1) 수출 상대국 다양화

2020년 브라질산 쇠고기 수출 대상국은 약 120개국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중국 수출 급증으로 수출 물량의 약 60% 정도를 중국과 홍콩이 차지할 정도로 중국 등에 편중되어 있는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으로의 극단적인 집중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브라질에서는 수출 대상국 다양화에 대한 대응이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 미국, 대 러시아 및 대 동남아시아로의 수출 증가가 보인다. 또한,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 확대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등의 시장도 주목된다.

### (2)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 확립

브라질 정부는 온실효과가스 저감 대책으로서 새로 ABC+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지속 가능한 육용우 생산체계 확립과 더불어 쇠고기 생산 유지와 확대를 어떻게 양립하여 갈 것인가가 과제이다. 그 실현을 위한 대응이 주목된다.

### (3) 육용우 생산 유지와 확대

목초지에서 농용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지만, 최근, 특히 사료곡물 가격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육용우 생산을 유지·확대하여 나갈지에 대해 주목을 받고 있다.

### (4) 방역 대책

2021년 5월에는 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이 확대되었다. 앞으로는 브라질 정부는 비접종 청정지역 상태 유지를 목표로 하여, 2026년까지 국가 전체적으로 백신 비접종 청정국화 실현을 추구하고 있다.

### (5) FTA체결

메르코수르는 2019년 6월 EU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아직 EU 회원국의 승인을 받지 못하여 체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한편, 현재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한국, 캐나다, 싱가포르 등과의 진전이 주목된다.

## 6. 맺음말

브라질은 세계 유수의 쇠고기 생산국이며, 주요 쇠고기 공급 국가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세계적인 유행에 따른 생산·유통·소비에 대한 영향과 중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대체 수요 등으로 브라질을 둘러싼 쇠고기 수급 상황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브라질 쇠고기 산업에서는 이러한 국내외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단기적~장기적 관점에서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브라질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출은 브라질에서 생산된 물량 전체의 30%를 밀돈다. 그러나 최근의 쇠고기 수급 동향을 보면, 해외, 특히 중국을 비롯한 무역 상대국의 동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 있다.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대두,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당장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이룬 중국 돼지고기 수급 동향 및 사료인 대두박과 옥수수 수급 동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어 쇠고기 수출에서 중국시장에서 경합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우루과이와 같은 쇠고기 수출국과 중국과 무역 관계 진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편, 생산 면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 목초지에서 곡물 생산을 위한 농업용지의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육용우 생산 기반 확대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쇠고기 생산 유지와 확대를 위하여, 어떻게 생산체계가 변화하여 나갈지가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방목방식에서 곡물비육장 방식으로의 이행이 하나의 방안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육용우 가격과 쇠고기 수출 가격 동향, 최근의 사료곡물 가격 상승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으로서 향후에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브라질 쇠고기산업은 국내외의 다양한 상황 변화에 대한 단기적~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부록 1 앵거스종<sup>26)</sup>을 중심으로 한 곡물비육장 생산의 사례

브라질 남부에서는 온대기후에 속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유럽계 품종<sup>27)</sup>도 사육되고 있다. 브라질의 육용우 생산은 목초비육이 주체이지만, 곡물비육장 외에 방목비육에 일부 곡식 등 사료를 급여는 세미 곡물비육장(Semi Feed-lot)<sup>28)</sup>도 있다. 이들의 생산 형태는 서서히 확대되어 나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부록 1 사진 1).

부록 1 사진 1 피드롯(곡물비육장)의 상황



26) 애버딘앵거스 종(Aberdeen Angus). 고기 소의 한 품종. 원산지는 영국 스코틀랜드의 북동부 지역인 애버딘앵거스 주(州)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육되는 품종이다. 직사각형의 몸통에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의 모습이다. 털빛은 검정색이며 뿔이 없는 것이 특징인데 다른 품종과 교배하면 모두 뿔이 없는 새끼가 태어난다. 머리는 작고 이마가 넓으며 목이 굵다. 등선이 곧고 복부에 작은 흰 점이 있는 것도 있다. 체질이 튼튼하여 추위에 잘 견디며 방목에 적합하다. 지방질이 적당하여 육질이 좋고 빨리 성장하며 난산의 빈도가 적다. 성질이 거칠고 다소 신경질적이다. 일당 증체량(增體量)은 0.8kg, 도체율은 65~72%이다. 빠가 12.8%로 적어 정육률이 높은 편이다. 갓 태어난 송아지는 암컷이 27kg, 수컷이 29kg이나 성장하면 암컷은 450~550kg, 수컷은 800~1,000kg이다. 임신 기간은 275~283일이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7) 일반적으로 고기소 품종 중 유럽계 품종은 ① 쇼트혼종(Shorthorn): 영국 잉글랜드 원산으로, 털빛깔은 붉은빛을 띤 갈색과 흰색이다. 몸은 넓고 통통하며, 특히 뒷몸이 충실하다. 자라는 속도가 빠르며, 살도 빨리 찌울 수 있고, 값이 비싼 부분의 고기량이 많다. ② 헤어퍼드종(Hereford): 영국 원산으로, 털빛깔은 얼굴, 등, 네 다리, 가슴이 흰색이며 다른 곳은 붉은빛을 띤 갈색이다. 고기소로서 가장 많이 사육되고 있으며, 방목에 적합하고, 체질이 튼튼하다. ③ 애버딘 앵거스종(Aberdeen Angus): 영국 스코틀랜드 원산으로, 털빛깔은 모두 검은색이며, 뿔이 없고 성질이 사납다. 몸무게는 약 800kg이다. 네 다리가 짧은 전형적인 고기소이다. ④ 샤롤레종(charolais): 프랑스 원산으로, 털빛깔은 크림색이고, 몸무게는 다 자란 수컷이 1,140kg, 암컷이 730kg 정도로 대형이다. 발육이 가장 빠르고 고기도 많으나, 육질은 좋지 않다. 성질이 온순하고 한국 기후에 잘 적응되어 한우와의 교잡종 이용에 매우 중요한 품종이나 교잡종은 난산되는 수가 많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28) 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牛肉生産の実態-豊富な資源を活用した集約的な飼養形態の進展-(브라질의 쇠고기 생산의 실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집약적인 사양 형태의 진전-’, 『畜産の情報』 2014년 12月号,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4/dec/wrepo02.htm>)을 참조하기 바란다.

## ○ 코페르 아리양사 조합

파라나 주 구아라푸아바(Guarapuava)에 있는 코페르 아리양사 조합은 앵거스종을 주체로 곡물 비육장 비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 조합은 생산자가 중심이 되어 2007년 12월에 설립되어, 다음 해인 2008년 9월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 2020년 현재 조합원 수는 170호로 앵거스종 소 사육 이외에도 양(羊) 사육도 하고 있다.

이 조합의 육용우 거래 마릿수 중 2020년에는 앵거스종 거래 마릿수 비율은 85.2%(2만 6,873마리)로 2012년 30.4%에서 2배 이상으로 높아졌다. 또 2012년에는 브라질 앵거스협회에 가입하여 인증을 받고 있다.

2020년에는 앵거스종을 중심으로 한 고품질 쇠고기 생산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는 일관체제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합으로 새로 식육처리시설(1일 도축처리 능력 345마리)을 건설하였고, 같은 해 12월부터 가동하고 있다(부록 1 사진 2). 그 때까지 육용우 도축 가공 처리는 외부에 위탁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식육처리시설 가동을 계기로 생산된 쇠고기 판매 지역의 허가가 주내 한정(SIE)에서 전국 및 해외(SIF)로 확대되었다.

부록 1 사진 2 도축처리 상황



## ○ 생산 방식

육용우 생산자는 파라나 주의 기준에 의한 경영 규모에 따라 소규모 생산자(150~300마리), 중규모(300~800마리), 대규모(800마리 이상)으로 분류된다. 경영 형태는 번식(Cria), 육성(Recría), 비육(Engorda)으로 나뉘는데, 생산자는 이 중 어느 단일 경영 형태 또는 이들을 조합한 경영을 하고 있다(부록 1 사진 3). 송아지 도입은 생산자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자가 번식, 시장에서 구입, 기타 상대 매매를 조합하여 이용하고 있다.



세미 곡물비육장 방식의 사육에서는 여름에는 목초지(호밀 등)에서 동절기에는 곡물 등의 사료를 급여한다. 이 조합은 원래 곡물을 중심으로 한 종합조합에서 육용우 부문이 독립된 것이며, 현재에도 이 종합조합법인의 회원인 배합사료 공장에서 사료를 공급받고 있다.

공급된 사료는 농가마다 육용우 성장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모두 배합되어 있다. 또 사일리지의 대부분은 자가 생산한 작물을 이용하여 조제하고 있다. 이들 작물의 수확, 사일로로 운반 등은 생산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조합이 정리하여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다.

부록 1 사진 3 소 사육 단계		
		
번식: 기간: 6-8개월 월령: 6-8개월 이유시 체중: 220kg	육성: 기간: 4-8개월 월령: 6-16개월 출하시 체중: 400kg	비육: 기간: 3-4개월 월령: 16-20개월 출하시 체중: 545kg

## ○ 독자적인 도체 평가

생산된 도체에 대해서는 월령(조숙성, 早熟性), 지방 부착 정도, 인증 유무의 항목별로 자체 평가 기준을 정하여 할증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부록 1 표 및 사진 4).

가장 높이 평가되는 도체는 미성숙이 +4%의 할증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방 부착이 충분한 것이 +6%의 할증금을 받게 된다. 또한, 앵거스종으로 인증되어 있는 경우에는 +4%의 할증금을 받는 등 총 14%의 할증금을 부여받을 수 있다.

한편, 식육에 대해서는 너무 크면 작업 효율이 떨어지므로, 지방상태나 조숙성 등 항목에서 너무 큰 것에 대해서는 할증금 지불을 위한 평가치가 낮아진다.

조합에서는 생산자가 남는 소를 만들어 주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 이 때문에 8명의 기술자, 수의사가 생산자를 돌면서 심층적으로 지도하고 있다.



부록 1 표 지육의 규격 및 할증율

숫소					암소				
체중	지방상태				체중	지방상태			
	부족	보통	균일	과잉		부족	보통	균일	과잉
255-284.9kg	1%	5%	5%	5%	195-244.9kg	1%	5%	5%	5%
285-345.9kg		5%	6%	6%	245-269.9kg		5%	6%	6%
346-360.9kg		5%	5%	5%	270-344.9kg		5%	5%	5%
361kg 이상	0%	1%	1%	1%	345kg 이상	0%	1%	1%	1%

숫소		
조숙성		
초조숙(Hyperprecocce)	14개월 까지	4%
더욱 조숙(SuperPrecocce)	14-18개월	3%
조숙(Precocce)	19개월 이상	2%
영구치 2개		0%

암소		
조숙성		
초조숙(Hyperprecocce)	14개월 까지	4%
더욱 조숙(SuperPrecocce)	14-18개월	3%
조숙(Precocce), 영구치 2개까지	19개월 이상	2%
영구치 2개		0%

앵거스 인증 있음	4%
앵거스 인증 없음	0%

부록 1 사진 4 육질 비교	
	
조합의 표준 육질(16-24개월령)	일반적인 육질(36-42개월령)



앵거스종의 특징은 육질면에서 장점이 있고, 번식력이 높으며, 조숙하여 생산자에게 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브라질 앵거스협회에서는 연간 40만 마리 정도를 앵거스종 소로 인증하고 있다.

이 협회에서는 코페르 아리양사 조합에 2명의 검사관을 상주시키고, 각각 목장에서 심사와 도축장에서 개체 검사를 실시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검사에 합격한 지육에는 ‘a’ 라는 스탬프가 찍힌다. <부록 1 사진 5>의 스탬프는 SIF 인증이다. 제품 패키지에는 협회의 인증 마크가 표시된다.

부록 1 사진 5 브라질 앵거스 협회에 의한 인증



## 부록 2 쇠고기의 다양한 요리

브라질의 연간 1인당 쇠고기 소비량은 2008년에 닭고기에 추월당하였지만, 그래도 여전히 국민의 식생활의 중심이다. 여기에서는 브라질 내 주요 쇠고기 요리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 1. 슈하스코(Churrasco)

국민적인 음식으로 남부 가우슈(또는 가우초, 목동<sup>29)</sup>)의 조리법이 시초라고 한다. 슈하스코는 다양한 부위의 고기 덩어리를 꼬챙이에 꿰어 숯불에 구워 만드는 것으로, 양념은 기본적으로 소금(岩鹽)이다. 고기 덩어리를 얇게 깎아 만들어 먹는데, 양파를 올리브유와 식초로 무친 것을 곁들이는 경우도 있다. 쇠고기가 중심이지만 닭고기, 돼지고기도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 먹기도 한다.

슈하스코를 제공하는 식당을 슈하스카리아(churrascaria)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정액으로 뷔페와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슈하스코에는 다양한 부위가 사용되며 가장 인기 있는 것이 피카냐(Picanha, 피카냐, 브라질의 쇠고기 부위, 슈하스코 또는 스테이크 등으로 먹음)이다.

수요를 채우기 위해 쇠고기 수출대국임도 불구하고, 피카냐는 희소 부위만큼 일부를 수입한다고 한다. 꼬챙이에 꿰지 않고 넓고 비교적 얇게 썬 상태인 스테이크 덩어리째로 숯불에 구운 아르헨티나 스타일의 가게도 있다.

부록 2 사진 1 슈하스코



29) 가우초(스페인어: gaucho) 또는 가우슈(포르투갈어: gaúcho)는 남미의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브라질 대평원이나 팜파스에 살며 유목생활을 하던 목동이다. 대부분 에스파냐인과 인디언의 혼혈로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번성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의 독립에 커다란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대부분 농장의 일꾼이나 도시의 날품팔이 노동자로 전락했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 2. 비프 스테이크(비페)

프라이팬 또는 철판에 구운 것으로 각종 향신료로 양념된 경우와 소금만으로 양념한 것이 있다. 이에 감자튀김, 페이조 콩(feijo, 검은 콩)을 삶은 것을 함께 제공되는 형태는 브라질의 정식 기본 패턴이다. 쇠고기에 계란 프라이를 얹은 것을 웬지는 모르지만 카발로(cavallo, 말)로 불린다.

부록 2 사진 2 비프스테이크



## 3. 찜 요리

브라질의 찜 요리에서는 페이조아다<sup>30)</sup>가 유명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료는 돼지고기로 쇠고기는 네모지게 잘라 말린 고기(Carne Seca, 후술)가 자주 등장한다.

상파울루 시의 대부분 식당에서도 볼 수 있는 쇠고기 찜 요리는 얇은 고기에서 당근이나 강낭콩을 한꺼번에 토마토 맛으로 익힌 비페 아 호레(Bife a Role)와 네모지게 자른 쇠고기(힘줄과 저급 부위)를 감자, 당근과 같이 삶아 만든 피카디요(Picadinho<sup>31)</sup>)가 있다. 이들 요리는 모두 브라질식 비프스튜라고 할 수 있다.

30) 페이조아다(Feijoada). 콩과 고기를 함께 끓인 것으로 대표적인 브라질요리이다. 과거에 브라질의 흑인노예들이 만들어 먹던 음식에서 유래하였다. 노예들은 먹을 것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농장 주인들이 먹지 않고 버린 돼지꼬리·귀·족발 등을 페이조(feijo)라고 하는 검은콩과 함께 삶아 먹었다고 한다. 요즘은 여러 가지 고기·소시지·베이컨 등과야채를 넣어 다양한 맛을 낸다. 보통 수요일과 토요일 점심에 먹는데, 칼로리가 높고 소화되는데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검은콩을 하루 저녁 정도 불린다. 다음 날 검은콩과 함께쇠고기 또는 돼지고기·돼지꼬리·족발·돼지귀·햄·소시지 등을 넣고 하루 종일 푹 삶는다. 삶아낸 고기를 썰어 부위별로 그릇에 담고, 볶은 양파·마늘 등을 월계수잎·콩과 섞어 다시 끓인다. 쌀밥이나 감자의 일종인 마니옥 가루와 함께 먹기도 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31) 피카디요(스페인어: Picadillo)는 푸에르토리코, 쿠바, 멕시코 등 라틴아메리카 국가 지역 사람들이 잘 요리해 먹는 요리이다. 간 쇠고기 혹은 간 돼지고기를 가지고 만든다. 피카디요는 멕시코나 푸에르토리코 등지에서는 타코의 속으로 들어가는 등 여러 요리의 내용물로도 쓰인다. 또한 여러 채소류를 같이 넣어 먹기도 한다. 또한 국(스튜) 형태로 먹기도 한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피카디요와 함께 감자 튀김을 먹는 것이 흔한 식사 형태 중 하나이다. 피카디요라는 이름은 스페인어 단어 “picar”에서 왔다. “picar”란 “갈다”, “으깨다”라는 뜻이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 내에서 피카디요는 전통 요리로 꼽히고 있다. 피카디요는 간 고기, 토마토 같은 것들, 그리고 지역

또 러시아 요리인 스트로가노프<sup>32)</sup>도 브라질에서는 많이 보급되어 있다. 이어 꼬리를 농후한 토마토 맛으로 익힌 라바다(Rabada, 하바다라고도 한다. 소꼬리국)도 인기가 높다. 이는 동남부 미나스제라이스 주의 전통 음식이다.

부록 2 사진 3 찜요리



#### 4. 생고기

브라질의 상파울루 주와 남부 여러 주에는 이탈리아 이민이 많아, 브라질인의 생활에는 이탈리아 요리의 영향이 크다. 이탈리아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쇠고기 생고기를 얇게 썬 카르파초(Carpaccio<sup>33)</sup>)이다. 슈하스카리아의 전채 요리로도 자주 제공되고 있다.

다양한 부위로 만들어지지만, 모두 지방기가 없는 살코기이다. 다진고기를 생으로 먹는 스테이크 타르타르<sup>34)</sup>도 있지만, 카르파초가 일반적이다.

에 맞는 요리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 푸에르토리코 및 쿠바식 피카디요에는 올리브와 케이퍼(서양 풍조목 꽃봉우리의 초절임)가 들어간다. 쿠바식 피카디요에는 칠리 파우더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 지역 사람들은 피카디요를 검은 콩이나 쌀밥과 곁들여 낸다. 필리핀에서는 피카디요는 보통 쇠고기 로 만든다. 필리핀식 피카디요는 흔히 감자나 차이오티(오이과의 덩굴 식물 열매)를 같이 넣어 만든다.(출처;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32) 스트로가노프(Stroganoff). 19세기의 러시아 외교관 Paul Stroganov의 이름을 따서 만든 요리로, 저민 등심과 양파, 버섯 등을 넣고 버터에 재빨리 볶아 Sour Cream을 섞어 만든다. 주로 Rice Pilaf (버터에 볶은 밥)과 곁들여 먹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으로 보는 전문조리용어 해설, 2008. 8. 25., 엄진철, 엄영호, 김상태, 허정, 이준열, 손선익, <https://terms.naver.com/>)

33) 카르파초(CARPACCIO). 이탈리아의 전채 요리로 생 소고기 채끝 등심을 얇게 슬라이스해 약간 물은 마요네즈 소스를 곁들여 차갑게 낸다. 1950년 베네치아의 해리스 바(Harry's Bar, 파리의 해리스 바와는 관계없음)에서 처음 선보인 이 요리의 이름은 르네상스 시대의 베니스 화가인 비토레 카르파초(Vittore Carpaccio)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따 온 것이다. 아주 얇은 소 채끝등심 1.3kg짜리 덩어리의 기름과 힘줄, 연골 등을 제거해 깔끔한 원통형으로 다듬은 다음 냉동실에 넣어둔다. 썰기 좋을 정도로 단단해진 소고기를 잘 드는 칼로 아주 얇게 슬라이스한다. 접시에 펼쳐 놓고 소금을 조금 뿌린 다음 냉장고에 최소 5분 이상 넣어둔다. 마요네즈 200ml에 우스터소스 1 ~ 2티스푼, 레몬즙 1티스푼을 섞고 소금, 흰 후추를 넣는다. 고기 위에 소스를 모양내어 조금 뿌린 뒤 서빙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https://terms.naver.com/>)

34) 스테이크 타르타르(steak tartare)는 생 소고기를 곱게 다지거나 갈아 양파, 케이퍼, 생 달걀 노른자 등을 곁들여 먹는 프랑스의 대표 요리이다. 정확한 유래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3세기 유라시아를 점령한 몽골의 타르타르 족(Tartar People)의 영향을 받아 발전한 요리로 보인다. 프랑스에서는

또 아랍계 이민자도 많기 때문에, 아랍음식도 보급되어 있다. 굵게 간 밀과 소 다진 고기를 섞은 경단 모양의 키베(Kibe 또는 Kibbeh) 프라이나 키베 크루(Kibe Cru)라는 생고기 형태도 제공된다. 이는 양파, 민트의 다짐과 올리브유를 섞어 먹는다.

## 5. 말린 고기(Carne Seca)

카르네 세카는 소금을 묻힌 쇠고기를 말린 것이지만, 보관 설비가 없는 시절에 보존 식품으로 널리 소비되었다. 포장된 것도 팔고 있지만, 시장 등에서는 상온에서 판매되고 있다. 소금기를 빼기 위해 물에 풀거나, 네모지게 잘라 튀겨서 조리하기도 한다. 양파와 함께 볶은 것이나 카사바 튀김을 곁들여 먹는다.

## 6. 내장

브라질에는 아르헨티나의 파리자다(Parrillada)<sup>35)</sup>처럼 내장을 숯불에 구워서 먹는 습관이 없다. 내장 요리로서는 간(liver)과 양파를 볶은 피가도 아세보라다(Figado Acebokada), 흰 강낭콩과 내장을 삶은 도브라지뇨(Dobradinho)가 식당의 단골 메뉴이다.

---

19~20세기 초에 본격적으로 대중화되었으며, 생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가 제기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미식가들의 애호 요리로 간주된다. 먹기 바로 전 생 소고기와 생 달걀 노른자, 가니쉬 등 모든 재료를 골고루 섞은 후 구운 빵 위에 얹어 먹거나, 프렌치 프라이(french fries) 혹은 가벼운 샐러드를 곁들여 먹는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음식명 백과, 김소영, 박혜진, <https://terms.naver.com/>)

35) 아사도(Asado) 또는 파리자다(Parrillada)는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 등 남미 국가의 전형 요리의 대표이다. 가우슈의 문화는 확실히 고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지금도 고기를 잘 먹지만 야채를 잘 먹지 않는 국민적 식문화로 계승되고 있다. 아사도는 '굽다'라는 뜻의 스페인어에서 유래했으며, 파리자(철망) 위에서 구운 고기는 아사도와 파리자다와도 같은 뜻으로 불린다. 아사도라고 하는 경우는 고기가 1 종류든 복수든 상관없지만, 파리자다라고 하는 경우는 내장을 포함해 여러 고기를 섞어서 먹는 경향이 있다. 또 가정에서는 아사도라고 부르고 레스토랑에서는 파리자다라고 부르는 경향도 있다. 그렇지만, 결국 혼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출처: (일)파리ジャーダ, 世界の料理レシピ, <https://jp.ndish.com/recipe/re00306/>)

## 참고문헌

- 대한민국 체육관광부, ‘미국산 젓소가 걸린 비정형BSE는 무엇인가’, 「공감」 2012.05.01.  
자 기사, <https://gonggam.korea.kr/newsView.do?newsId=148732403&pageIndex=488>)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 허 덕, ‘주요국 육우산업 현황’, 영남대학교 한우마이스터 교육자료(ppt자료), 2017.6.28.
- 허 덕, ‘브라질 주요 곡물(콩, 옥수수)산업 동향’,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4월호(9권 2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브라질의 곡물 관련 정책’,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2월호(9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5편) 최근 브라질의 닭고기 수급 동향-신형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종진, 박지원, 김태련, ‘[특집: 코로나바이러스가 각국 축산부문에 미친 영향] (제7편) 중국 쇠고기산업 현황과 과제」 「해외곡물시장동향」 10권 2호(2021년 4월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김태련, ‘브라질의 대두 생산 : 미국·아르헨티나와의 비교’,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12월호(10권 6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1편) 브라질 대두산업의 구조 변화-대두 집하업을 중심으로 한 일고찰-’,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2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의 정세(전편)-생산은 마토그로소 주를 중심으로 향후에도 확대 전망-’,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박지원, 김태련, ‘<특집: 브라질 곡물산업> (제3편) 브라질의 콩, 옥수수를 둘러싼 최근 정세(후편) ~물류 인프라 정비의 진전에 따라 수출이 확대되는 북부 항~’, 「해외곡물시장동향」, 2020년 10월호(9권 5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허 덕, 박지원, 김태련, ‘브라질 농업 2019년 회고와 대두 생산의 위상’, 「해외곡물시장동향」, 2021년 2월호(10권 1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ohns Hopkins CSSE

농축산업진흥기구 조사정보부 국제조사그룹, ‘ブラジルの牛肉需給動向および今後の展望’,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2년 2月号

농축산업진흥기구, ‘食肉処理場などにおける新型コロナウイルス感染症に対するガイドラインを定めた省令を公布(ブラジル)(식육 처리장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정한 규칙을 공포(브라질))」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0년 6월 25일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5.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735.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口蹄疫ワクチン非接種清浄地域として6地域を追加(ブラジル)(구제역 백신 비접종 청정지역으로 6개 지역을 추가(브라질))」,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 6월 7일자,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59.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2959.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2011/12年度農業プランがスタート(ブラジル)-持続可能型農業の推進がポイント-(2011/12년도 농업 계획이 스타트(브라질)-지속 가능형 농업 추진이 포인트-)’, 「畜産の情報」 海外情報, 2021년 7월 19일자 ([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0431.html](https://www.alic.go.jp/chosa-c/joho01_000431.html))

농축산업진흥기구, ‘ブラジルの牛肉生産の実態-豊富な資源を活用した集約的な飼養形態の進展-(브라질의 쇠고기 생산의 실태,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집약적인 사양 형태의 진전-)’, 『畜産の情報』 2014年12月号, (<https://lin.alic.go.jp/alic/month/domefore/2014/dec/wrepo02.htm>)

미쓰비시UFJ Research and Consulting, 「현지참고 환율상장」.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http://www.joongboo.com>)

네이버 블로그 애니웨어1, <https://blog.naver.com/anywear1/220148747616>)

네이버 지식백과 그랑 라루스 요리백과, 강현정, 김미선,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농업용어사전 농촌진흥청, <https://search.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사진으로 보는 전문조리용어 해설, 2008. 8. 25., 엄진철, 엄영호, 김상태, 허정, 이준열, 손선익,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세계 음식명 백과, 김소영, 박혜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식품과학사전,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와인&커피 용어해설, 2009., 허용덕, 허경택,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용어·지표의 이해, 2015. 4., <https://terms.naver.com/>).

네이버 지식백과 환경 경제용어사전, <https://search.naver.co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

(일)パリジャーダ, 世界の料理レシピ, <https://jp.ndish.com/recipe/re00306/>)

미쓰비시 UFJ 리서치&컨설팅 주식회사의 ‘월말·중순 평균 환율’  
‘환율플러스’ 앱

Abiec(Associação Brasileira das Indústrias Exportadoras de Carnes)

IBGE([www.ibge.gov.br](http://www.ibge.gov.br),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브라질 지리통계원)

CEPEA(Centro de Estudos Avançados em Economia Aplicada, 응용경제학 고급 연구 센터)

CONAB([www.conab.gov.br](http://www.conab.gov.br), 국가식량공급공사)

OIE(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ww.oie.int](http://www.oie.int))

브라질 보건성(Ministry of Education and Health in Brazil)

브라질 대외무역사무국(SECEX)

파라나 주 농업공급성(SEBAB).